

복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Who are Blessed?)

시편 1 편; 누가복음 6 장 17-26

Feb 17, 2019 MSPC

사람이 무엇을 원하며 살아갑니까? 행복입니다. 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이란 말은 좋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과거 한국 사람들은 복을 간절히 바래서 한자의 복자를 숫가락, 밥그릇에 새겨 넣었습니다, 옷장, 벽지, 방석, 베개, 이불, 옷 등에도 새겨놓았습니다

한국 사람을 포함한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오복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오복이란 말은 중국의 사서 삼경 중에 '서경'에서 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오복의 첫째는 장수 즉 오래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건강한 것입니다. 넷째는 수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를 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섯째는 고종명이라고 해서 자기 명대로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복이 서민들에게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서민들이 바라는 오복은. '통속편' 나오는데 수, 부, 귀(貴), 강녕, 자손중다(子孫衆多)입니다. 서민이나 천민은 귀하에 되는 게 남을 위해 봉사하는거라 생각했습니다. 천민들을 당연히 귀해 지는

것을 바랐겠지요.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노동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자손이 많은 것이 잘 죽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은 대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이렇게 모든 오복을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모든 오복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질이 행복의 기초라면, 돈이 많은 사람 순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많은 사람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건강이 행복의 기초라면 건강한 사람 순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건강한 사람도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세상 지위가 행복의 기초라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만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세상에서 출세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의 우울증은 오히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에게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현대인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인간이 더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수명은 훨씬 늘어났고, 인간의 부도 늘어났고 있습니다. 이전 어느 세대 보다 잘 살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행하다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예전 보다 더 늘었습니다

더구나 과학은 발전하는데 세상은 더 위험해 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수 많은 무기를 개발합니다. 이제는 핵무기 한 방이면 세계의 질서는

한번에 무너집니다. 인간이 그렇게도 갈망하고 추구하는 참 행복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온전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본문에 시편 기자도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 절 *복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합니다. 시편이 150 편인데 그 첫 시작이 복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에 아쉬레 하이쉬 아쉐르' 라는 말은 -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 삶이 곧 바르고 평탄하고, 잘 되어 나가는 복을 받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1 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있는 사람이 되려면, 진짜 행복해 지려면, '죄'라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 많고, 건강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그 인생을 사로 잡습니다.

그래서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악이 꾀 즉 생각에서 출발 합니다. 그러다 죄인에 길에 서는 데로 나아갑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 간다는 것이입니다. 그러다 더 나아가 오만한 자리에 아예 자리잡고 앉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아예 적극적으로 죄의 삶에 주저 앉는 단계로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악인인 꾀를 냅니다. 꾀는 다른 말로 모략입니다.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자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저 자신의 행복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악인은 가는 길이 잘못되어도 성공만 한다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앓아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 아예 주저 앓아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랑 곳 없이 주저 앓아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비웃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늘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다 한 그룹입니다. 악한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들을 오만합니다.

인간의 불행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입니까? 출세하지 못해서 입니까? **인간이 불행한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살고 출세해도, 마음 속에 불안과 공포가 짝 들어차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해 지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복은 바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잘하는게 복받는 길의 시작입니다. 복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마음으로 부터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악인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고나 알아보아서는 안됩니다. 이런 악한 삶에서 멀어질 때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잘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잘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시편 1 편 2 절에 있습니다. **2 절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율법이란 우리에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야로 즉 낮과 밤 하루 종일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밤 낮 생각합니다. 그 밤낮 무엇을 합니까? 복있는 사람은 **밤낮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묵상한다는 뜻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귀기울이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긋난 길로 갑니다. 자기는 행복한 길로 간다고 하는데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됩니다. 자기는 물이 넘치는 땅으로 간다고 하지만, 결국 메마른 사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이란 결국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매일 쪽쪽 빨아드리고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무가 시냇물을 빨아들이듯 영적인 물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형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겨는 알맹이가 들어 있지 않는 껍질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겨는 집 마당에 가득 쌓아놔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갑니다. 악인 삶은 뭘 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삽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완전히 끝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면 의인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도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 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또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분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혈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걸음 한걸음 복된 삶의 길을 걷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6 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복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복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복있는 사람이 못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조건에 살아도 진짜 복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뒤로 가면 갈 수록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있는 사람은 한 마디로 하나님께 인정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도 바로 이런 참다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설교를 여러번 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복의 말씀을 팔복으로 기록해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은 네가지 복과 네가지 화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 장 20 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당시 유대의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에 정치적 자유도 없고, 자기들 지도자들은 비전이 없고 백성들은 곤고했습니다. 가난을 한탄하며 자신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 = 불행이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고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복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만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죽은 이후에도 행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갖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영적인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이 세상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결국 인간의 진짜 행복은 영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은 죄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어떻게 배고픈 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고픈 것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배가 너무 고프 사람입니다. 영적인 갈망으로 배가 쪼록 쪼록 고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국 영적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 말씀합니다. 슬픔과 행복은 정반대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는 사람이 행복해 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슬퍼서 애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 장 22 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에게 미움받고 소외되고 욕을 먹고,
버림 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날에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아주 다른 차원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적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런 복도 아주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이와 같은 복은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말씀속에는 진짜 축복이 뭔가 잘 생각해보라는 초청이 담겨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오복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땅의 것만으로 행복해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은 생각과 마음속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진짜 복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모두 깊이 깨닫고 날마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하나님 진짜 복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이 진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